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 · 출마 선언' 러시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입지자 분주
“얼굴알리기 · 조직 정비 총력...선거 열기 ↑”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와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등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17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 동남갑 출마를 준비 중인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5일은 민주당 후보로 광산에 도전하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9일은 민주당 소속으로 서구에 출마하는 이남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광산에 출마하는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를 선언한다.
10일은 광산에 도전하는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출

표를 던진다. 김 전 원장은 2일 이 인식을 하고 총선 준비에 들어간다.
11일은 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이 광산갑 출마를 공식화하고 16일은 북구갑 정준호 변호사, 17일엔 조오섭 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출마 입장을 밝힌다.
앞서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달 26일 출마를 선언했고 노남수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북구를 출마 입장을 밝혔다.
합법적인 홍보수단으로 세 걸림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도 잇따르고 있다.
7일에는 동남을의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산갑의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8일은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대표 등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위원

장은 지난달 11일, 최영호 민주당 동남갑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북구갑 현역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출판기념회를

각각 열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17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16일부터는 공직자 사퇴와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한

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총선 입지자들의 출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

다”며 “후보마다 얼굴 알리기와 조직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얀 눈 덮인 지리산노고단 3일 오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 밤새 내린 눈으로 산 전체가 하얗게 덮여 있다.

광주시 “2순환로 법인세 70억원 환수 조치”



올 6월부터 조치 취해

광주시는 3일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급금’ 100억원 중 70억원을 환수조치 중”이라

고 밝혔다.
시는 이날 감사원의 지난달 28일 ‘민자사업자와 제2순환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자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재단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하면서 올 6월부터 법인세를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산업부 기술개발 공모 선정... “조선분야 탄력”

선박 난연소재 개발 · 선박 연료공급 시스템 등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박 난연소재 개발 등 전남의 2개 과제 선정돼 조선 분야 미래 먹거리 개발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밝혔다.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투입, 산업 위기지역에 총 8개 과제를 선정하는 이번 사업은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기

업이 연구기관과 함께 발굴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 선정과제 중 국비 16억 원이 투입되는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해상용 50kg/m³급 난연소재 개발’은 기존 유리섬유 소재 선박 난연제품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해경 경비함정 등 관공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비 19억원이 투입되는 ‘7500㎡ LNG 병커링 선박용 차세대 연료공급 탱크 핸들링 시스템(SHS) 국산화 기술개발’은 선박엔진에 공급되는 LNG연료를 별도 공급 펌프 없이 탱크 내 압력에 의해 이송하고 제어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LNG 추진선을 건조하는 대형 조선사에서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를 거쳐 목포, 해남, 영암 등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목적예비비 58억원을 12개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및 환경개선 33억원, 세라믹 부품소재기업 사업화 지원 등 조선업 대체산업 지원 25억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개발 사업비 35억원을 포함하면 전남도는 목적예비비 93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 조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새 먹거리 분야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대형 블록 제조 위주인 전남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분야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최우선
보다 나은 KFD

울타리

울타리는 그 만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우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FD 한국농어촌공사